

난(難)을 극복하는 신심(信心)

웨이트 기구를 사용해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지며 저항력이 강화된다. 이와 유사하게, 인생의 여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도전은 우리 자신의 생명을 단련시켜준다. 불도수행을 통해 난(難)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승리함으로써 부처의 생명경애인 지혜, 생명력, 용기, 자비의 ‘근육’을 단련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난(難)은 무너지지 않는 행복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불법에서는 주로 난(難)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불도수행에 면려할 때 일어나는 장애를 ‘삼장사마’라고 하며 두 번째는 법화경에서 법을 흥통하는 법화경의 행자를 공격하는 것을 ‘삼류의 강적’이라고 설하고 있다. 불도수행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난은 다투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삼장사마

‘삼장사마’는 진정한 행복 즉 성불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내·외부로부터 나오는 방해의 작용을 말한다. 니치렌 대성인은 천태대사의 마하지관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행해(行解)를 기위(既爲) 힘쓰면 삼장사마가 분연히 다투어 일어난다. 내지 따르지 말지며 두려워 말지어다.” (형제초, 1087 쪽) 여기서 대성인은 장애가 일어날 때는 그것이 알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장애를 인지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단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마의 작용을 ‘두려워’하거나 ‘휘둘러’ 되어 불성이 혼탁하게 되어 불도수행을 방해받게 된다. 삼장에는 (1)번뇌장, (2)업장-현세에 쌓고 있는 잘못된 행위, (3)보장-과거세의 악업에 의한 장애가 있으며, 사마(四魔)란 (1)음미-신심수행자의 육체적, 정신적 작용(오음, 五陰)의 장애, (2)번뇌마-탐욕, 진에, 우치 등의 장애, (3)사마(死魔)-불도 수행자의 목숨을 잃게 하여 수행을 방해하거나 다른 수행자 등의 죽음으로 신심의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장애, (4)천자마(제육천의 마왕)-여러 형태와 힘으로 불도 수행자에게 신심을 못하도록 하는 장애를 말한다.

삼장사마는 불도수행에서 얻는 밝고 긍정적인 생명 경애를 무너트리고 행복을 위해 투쟁하고자 하는 마음을 약화시킨다. 그 결과 불도수행을 하면서도 지혜와 용기가 부족하게 된다. 특히 제육천의 마왕이 가장 강력한 마인데 우리주변의 영향력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나타나 불도수행의 전진을 방해하고 수행자를 피해의식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작용을 한다. 그것은 근본적인 생명존엄을 무시하고 만인이 불성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숭고함을 거부하는 인간의 경향성에서 비롯한다. 그러한 경향성과 무지를 원품의 무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장애가 삼장사마의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해 하기보다는 이것을 불도수행의 장애라고 인식하고 신심, 기원 그리고 행동으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원한 행복은 생명내부의 무명이나 무지를 이기는 법을 배움으로써 구축할 수 있다. 이케다 SGI 회장은 “불법은 부처와 마와의 싸움입니다. 삼장사마와 맞서 그것을 타파할 때 우리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리빙부디즘 2004년 1월, 48 쪽)라고 말씀하셨다.

성불하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이야말로 무너지지 않는 행복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장애와 장마의 작용이 나타났을 때야말로 숙업을 바꾸고 행복을 구축할 수 있는 바로 그때이다. 대성인께서는 “반드시 삼장사마라고 하는 장애가 나타나는데 현자는 기뻐하고 우자는 물러남이 이것이니라.” (효이사칸 전답서 1091 쪽)고 말씀하시며 어떠한 장마에도 절대 물러서지 말고 즐겁게 도전하여 문제를 극복하라고 격려했다. 삼장사마를 만났을 때 현자는 기뻐한다. 그 이유는 역경과 장애가 저항력을 키워 성불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삼류의 강적

법화경 권지품제 13 에서 석존은 말법에 법화경을 흥통하는 정법의 행자를 박해하는 세 종류의 강적이 출현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 강적은 (1)속중증상만, (2)도문증상만, (3)참성증상만인데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타인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거만함이다.

첫째, 속중증상만은 법화경의 행자를 박해하는 불법에 무지한 중생을 말한다. 법화경의 행자에 대해 악구매리해서 사회적 지위나 안전까지 해치려고 한다.

둘째, 도문증상만은 거만하고 교활한 승려를 가리킨다.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서 권력자에게는 아첨하고 민중을 깔본다. 이 두 번째의 증상만은 자신들은 불법을 득도했다고 주장하나 정법의 수행을 가르치기는커녕 정법을 수지. 수행하는 행자를 비방하고 박해한다.

셋째, 참성증상만은 사람들로부터 성자(聖者)로 숭앙받는 고승이지만 실제로는 높은 지위와 이익만을 탐낸다. 명성을 잃기 두려워서 권력자와 공모해 법화경의 행자를 박해하는 거짓된 참언을 한다.

법화경에서는 삼류의 강적이 정법을 수지, 수행, 흥통하는 행자를 탄압해서 광선유포의 흐름을 막으려고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견딜 수 있으나 세 번째의 참성증상만은 가짜 성자의 정체를 좀처럼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간파하기 힘들다.

어성훈에 “검(劍)이라도 부진한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법화경의 검은 신심이 강성한 사람만이 소용되는 것이며.”(교오전답서, 1124 쪽)라고 하셨다.

난을 겪는 것도 인생의 일부이며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난을 두려워하기보다 대성인님의 불법을 수행하는 우리는 제목의 검(劍)을 가진 신심 강성한 용자가 되어야 한다.

이케다 회장은 “일생성불하는 과정에는 속명전환의 격투가 있으며, 삼장사마와 삼류의 강적이 다투어 일어납니다. 신심으로 봄을 향해 크게 비상하려면 반드시 시련이라는 겨울을 극복해야 합니다.”(이케다 SGI 회장 강의 희망의 경전 ‘어서’에서 배운다. 월드 트리 분 12 월 19 일자, 6 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에 단호히 직면하고 극복함으로써 우리자신의 숙명을 바꿀 수 있으며 각자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신만의 사명을 완수해 갈 수 있는 것이다. ■